

혼자 사는 청년에게 생활정보를 어디부터 전할까

SGIS 청년통계지도로 정한 서울 25개 자치구 안내 우선순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생활·정책 정보를 알릴 때, 청년이 많은 지역과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서울 25개 구를 비교해 안내를 먼저 시작할 곳을 정하는 데 SGIS를 활용했다.

규모 우선 5개 구에 24만 2,093명이 거주한다. 서울 청년 1인가구의 36.0%다. 지역 내 비중까지 살펴 금천구와 마포구를 보완지역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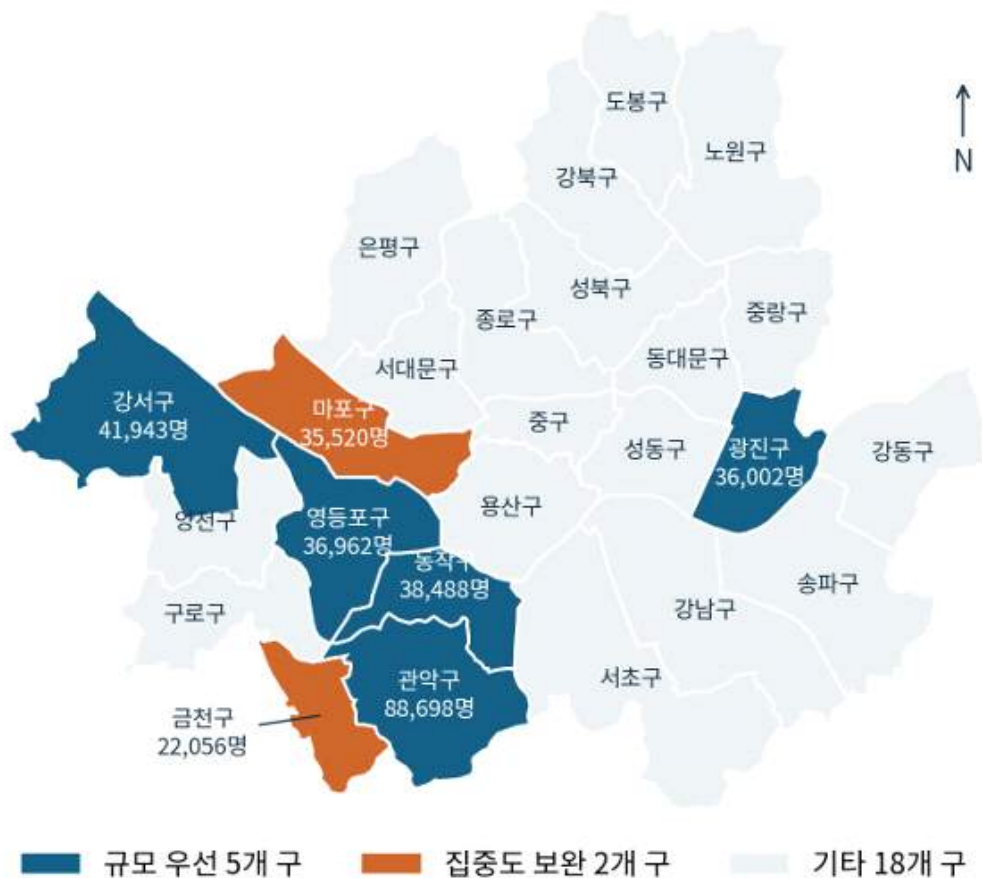


그림 1 규모 우선 5개 구와 집중도 보완 2개 구. 2024년, 19~34세.

통계·경계: 국가데이터처 SGIS. 작성자 계산 및 시각화. 선정 기준은 2쪽에 명시.

이 결과는 안내지역 선정 자료다. 실제 홍보·상담을 시행하거나 도달인원을 측정한 성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 추진과정

먼저 SGIS 청년통계지도에서 연도는 2024년, 위치는 서울특별시 전체, 기준은 청년기본법의 19~34세로 고정했다. 인구·가족의 청년 인구와 1인가구 청년 지표를 조회했다.

사용 자료	기준과 용도
청년 인구	2024년 · 지역별 분모와 비교 기준
1인가구 청년 인구	2020·2024년 · 규모, 비중, 변화
일자리가 있는 1인가구 청년	2024년 · 안내방식 검토의 참고
SGIS 행정구역 경계	2024년 · 통계지역코드로 지도 결합

25개 구의 통계지역코드로 자료를 결합했다. 청년 1인가구 비중은 해당 구 청년 1인가구 수를 같은 연령의 청년 인구로 나눴다. 기준연도·분모·누락·중복과 합계를 확인했다.

선정 기준은 각 순위의 상위 20%인 5개 구다. 인원수 상위 5곳은 규모 우선, 비중 상위 5곳 중 앞선 집합에 없는 곳은 집중도 보완으로 구분했다. 이는 비교를 위한 작성자 기준이며 최적 예산배분 기준은 아니다.



그림 2 실제 SGIS 조회 화면의 통계 패널 발췌(2026.9.28.). 서울 19~34세 1인가구 672,266명. 9.29. 재확보 자료와 합계가 일치한다.

□ 추진내용

1 규모와 집중도를 함께 확인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88,698명이다. 관악·강서·동작·영등포·광진구를 규모 우선지역으로 정했다. 비중 상위에는 금천구와 마포구가 추가로 포함돼, 두 곳을 보완지역으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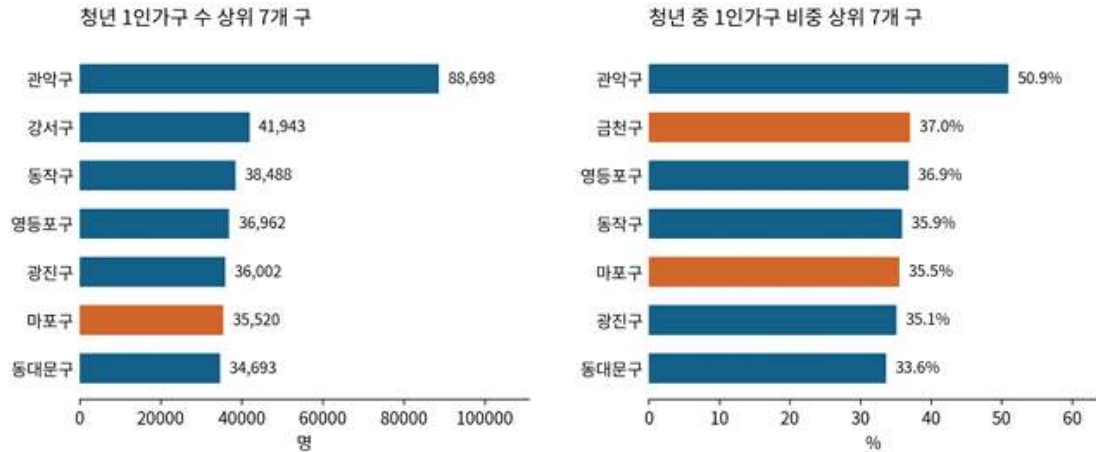


그림 3 동일 자료에서 인원수와 지역 내 비중을 따로 비교. 주황색은 보완지역. 비중의 분모는 각 구 19~34세 청년 인구이며, 서울 전체 1인가구 수가 아니다.

금천구는 22,056명으로 인원수 13위지만, 청년 중 1인가구 비중은 37.0%로 2위다. 마포구는 인원수 6위, 비중 5위다. 인원수만으로 안내지역을 잘라내면 두 지역의 집중 특성이 덜 드러난다.

서울 청년 1인가구는 2020년 557,317명에서 2024년 672,266명으로 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천구는 41.2% 증가했다. 과거의 배분을 고정하기보다 새 통계로 안내지역을 갱신할 이유다.

이 변화율은 집계인구의 변화다. 개인의 전입 원인, 정책 수요의 증가 또는 기존 안내의 부족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 추진내용

2 안내지역과 운영 검토사항으로 전환

구분	자치구	1인가구 청년	청년 중 비중
규모 우선	관악구	88,698명	50.9%
규모 우선	강서구	41,943명	32.4%
규모 우선	동작구	38,488명	35.9%
규모 우선	영등포구	36,962명	36.9%
규모 우선	광진구	36,002명	35.1%
집중도 보완	마포구	35,520명	35.5%
집중도 보완	금천구	22,056명	37.0%

청년센터·대학·지역 커뮤니티의 안내 담당자가 이 표를 사용한다면, 5개 우선지역의 게시·배포 협력처부터 확인하고 금천·마포구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장소와 물량은 기존 사업, 인력, 협력처를 확인한 후 정한다.

비교 시나리오에서 청년 인구 수 상위 5개 구를 택하면 청년 1인가구 233,969명이 거주한다. 대상인 청년 1인가구 수로 선정 기준을 바꾸면 242,093명으로 8,124명 늘고,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p 높아진다.

이 비교는 대상집단에 맞춘 지역 선택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자체가 인원수 최대화를 지향하므로 성과 실험이나 실제 홍보 효율 향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있는 청년 1인가구는 616,492명으로 전체의 91.7%다. 비대면 상시 안내와 시간대별 문의수요 확인을 운영 검토사항에 넣었다. 이 통계만으로 근무시간이나 야간상담 수요를 단정하지 않는다.

□ 추진성과

이번에 완료한 성과는 25개 구 비교표, 안내 우선지역 지도, 7개 구 선정표와 재현 가능한 계산 근거다. SGIS의 연령·가구구성별 통계로 안내 대상에 맞는 지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5개 규모 우선지역과 2개 보완지역의 청년 1인가구는 합계 299,669명 (44.6%)이다. 실제 안내 대상자 명부나 연락 가능한 인원수는 아니다. 기관 도입, 현장 운영, 이용자 반응 측정은 아직 수행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반복하는 방법

SGIS에서 시도·연도·연령을 선택하고 같은 세 지표를 조회한다. 지역코드로 결합한 뒤 인원수와 비중을 각각 정렬한다. 상위 비율을 정하고 두 집합을 비교해 지역별 안내 계획표를 작성한다. 첨부 계산 코드는 동일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적용 전에 확인할 한계

2024년 자료는 현재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 평균은 동네별 차이를 숨긴다. 실제 정보 부족과 시설 접근성은 측정하지 않았다. 후속 적용에서는 기존 안내 현황과 이용자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배포·조회·문의 건수를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SGIS 청년통계지도(청년통계등록부, 2026.8. 기준 공개자료), 2020·2024년, 시군구, 19~34세. 자료 재확보 2026.9.29.
<https://sgis.mods.go.kr/view/syrStats/main>
경계: SGIS 행정구역 경계, 2024년, 시군구. 산식·원응답·검증 결과는 별첨 참조.